KWANGSHIN COMPRES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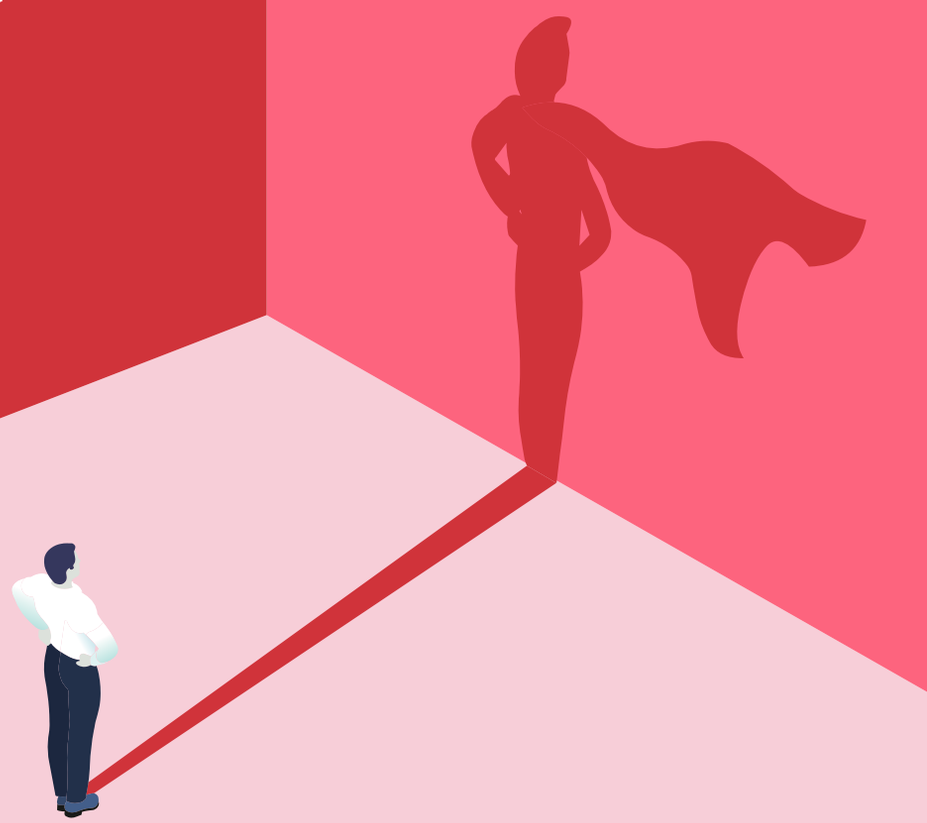
NEWSLETTER

2020 WINTER
vol. 88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

괴테



광신기계공업(주)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24
TEL +82-55-589-8000

난세(亂世)에 길을 묻다.

제게 가을은 언제나 추석 성묫길에 보는 들녘의 익어가는 나락들의 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산에 들에 색색의 물감들이 풀리고 어울리다 어느덧 출근길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개나리보다 노란 조그만 아기 손 같은 은행잎이 가지들과 이별을 하고 보도블록 위에 쌓여가면서 드디어 만추를 느낍니다.

만추를 지나 겨울로 가는 길목인데도 올해는 온통 어지러운 소식으로 시끄럽습니다. 코로나로, 그로 인한 경제침체로 그리고 국내외적인 정치 변화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네요. 뭐 하지만 난세에 영웅도 납니다. 이런 시절에도 장사 잘 하는 기업도 있고 저변 깊숙이 변해가는 세상의 시류를 잘 읽고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굴뚝산업을 하는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답도 없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무중,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이란 무엇이길래 묻고 싶은 걸까요? 지향(志向)인가요? 아니면 방향(方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도(道)인가요? 저는 매일 갈림길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착지는 압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길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의 선장인 제가 식구들을 살피기 위해 아직 남은 진로를 찾고 싶고, 적당한 때가 되면 다음 선장에게 키를 맡기고 하선하는 퇴로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떠나셨습니다.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하시면 됩니다만 '업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남은 길을 찾는 저에겐 소중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등정신을 강조하신 선대 회장과는 달랐습니다. 회사 이름에 '제일'이 들어가는 시대를 지나서 일등은 일류와 다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일등은 남보다 앞서서 제일 앞자리에 있다는 말이지만 일류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광신)의 업의 본질은 제조업이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제조업의 정신이라니, 누구는 보수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20 WINTER vol. 88

-

발행일 : 2020. 11
발행인 : 권환주
발행처 : 광신기계공업(주)
기획·편집 : 금창협
디자인 : 디자인오투

CONTENTS

-

01P Message from Harry
03P 광신뉴스
07P Perfect 제품
08P 가스 기술정보
09P 특별기고
10P 광신 협력업체 (국내)
11P 광신 국내외 현장보고
12P 광신 협력업체 (해외)
13P 광신 에세이
14P 이달의 사원
15P 글로벌 산책
16P 모바일 속 세상
17P 힐링 건강한 생활
18P 광신인 소식/한권의 책

그럼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조업을 하고, 업의 본질을 찾고 또 길을 찾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볼 때 늘 어중간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면 의식의 진보성과 존재의 수구성이 접니다. 그래도 어중간한 주제에 소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젊을 때는 저도 꽤나 부정적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젊은이는 부정하면서 성장하고 어른은 그 부정하던 대상과의 차이를 알게 됨으로써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다 부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 넘버원이 아니면 안 되나 봅니다. 그렇게 배우고 자란 우리가 온리 원이면 다 된다는 이기적인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일하면 같이 사는 세상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넘버원 미국과 온리 원 중국이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피해를 보면서요. '유아독존'이란 의미는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지, 이기심으로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DNA에는 혼자 생존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기심은 남을 해치고, 결국에는 나도 해칩니다. 모두 나만 찾고, 개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리 원은 새롭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수준이나 정도를 정의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 '개성'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공통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성끼리 서로 소통하고 생존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입니다. 지난 시절의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업의 본질'인 저(광신)는 길을 찾아 고민합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도 인지 가능한 질서와 의미에 기초해야 합니다. 현대의 음악이나 미술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파괴하고 실험하면 그 이유도 잊게 됩니다. 인지 가능한 질서란 보편적 가치를 말합니다. 디지털 문명과 보편적 가치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세계 7대 기업이 이미 모두가 디지털플랫폼 기업입니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고, 영화를 폰으로 보고, 온갖 일들을 NET 망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비대면 이어서 비인간적입니까? 꼭 보고, 만지고, 같은 공간에서 놀아야 인간적인가요? 정치에서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아무도 휴머니티가 디지털과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밀도 없고, 정보가 공유된다고 평등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으면서 불편부당한 일들을 못 참고 서로 참여하는 일이 보편적 가치로서 디지털이 사람을 향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은 오히려 사람들과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같이 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 이 변화를 오히려 잘 이용해야 합니다.

살불살조 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저는 회색분자이니 중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미래의 세상에는 좌우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문 학도이지만 늘 제 생각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다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도는 근본입니다. 바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같은 변화의 시기에는 틀이 필요 없습니다. 생각의 틀이 행동을 막아섭니다. '살불살조'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사는 진리를 위해서 우상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틀을 없애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 발목 잡는 것 모두 버리고, 디지털이건, 꼰대 아날로그건 모두 치우고 가는 길에만 집중합니다. 세상은 늘 흐릅니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변합니다. 그냥 둡니다. 그리고 같이 흘러갑니다. 내 것도 아닌 것들, 온리원 이건, 넘버원이건, 개성이건 모두 버리고 비워서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림자에 속지 말고, 과거도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그냥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면 에고를 버려야지요.

저는 투수이기도 합니다. 제 앞엔 제 공을 받는 포수와 그것도 위험하면 뒤에서 공을 받아줄 야수가 일곱이나 있습니다. 치사하게 어렵다고 유인구나 던지고, 헛스윙 유도하다 홈런 맞습니다. 저는 난세에 정면승부할 생각입니다. 제 길은 스트라이크존으로 구석구석 머리 써가며 던질 겁니다. 야수들(광신 식구들)을 믿습니다. 저도 145Km 이상은 던질 수 있도록 더욱 단련하겠습니다. 타자가 많이 쳐도 이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던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식구들을 믿고 힘차게 던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P/S : 난세에 힘든 이 때 슈만의 음악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슈만의 피아노곡이 좋습니다.
새로 나온 백건우님의 음반을 추천합니다.

대표이사

2020 KWANGSHIN NEWS

2020. 11 / vol. 88

Jyotech Bare 압축기 2개 수주

Order from Jyotech Bare for Two Compressors

지난 7월과 9월 당사의 인도 AGENT인 JYOTECH ENG & MKTS CONSULTANTS로부터 산업용 압축기 Bare 2세트는 수주받았다. 당사의 오랜 Agent 인 JYOTECH 은 그동안 산업용 및 CNG 압축기의 완제품을 주로 취급했지만 최근 Bare를 수입해 Packaging 하는 부분까지 업무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광신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는 JYOTECH의 미래를 기대한다.

Jyotech Eng & MKTS Consultants, our Indonesian agent, placed orders with us for a total of two sets of industrial compressor bares in July and September this year. Jyotech has purchased our finished products such as industrial and CNG compressors for years, but it appears that they are now expanding their business areas to packaging. Kwangshin wishes them all the best in their future business efforts.

01

한국가스기술공사 양산&평택 수소충전소 수주

Orders from Korea Gas Technology Corporation

지난 8월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양산시 및 평택시에 계획중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수소충전소 입찰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지만 광신은 제품에 대한 꾸준한 개발 및 업그레이드로 그 어떤 업체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될 제품은 하루 넥쏘 65대와 FCEV 버스 1대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제작되어 내년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An agreement was made with Korea Gas Technology Corporation on Aug. 20, 2020 for us to manufacture and install compressor packages for the hydrogen fueling stations to be built in Yangsan City and Pyeongtaek City.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environment, Kwangshin is making efforts to lead the hydrogen fueling market with consistent development and enhancement. Each compressor package will be built to fuel in excess of 65 Hyundai NEXO fuel-cell vehicles and one hydrogen FCEB (Fuel Cell Electric Bus) per day.

03

창사 53주년 기념식 개최

The 53rd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Kwangshin

당사는 지난 8월 14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당사 복지동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사장님께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 및 그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도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격려 말씀이 있으셨다. 그리고 지속적인 광신에 도움을 주시는 우수 협력업체 및 당사의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The celebration for the 5rd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Kwangshin was held on August 9, 2020 at the Grand Auditorium in the Welfare Building of the Company with the attendance of the entire employees. The President praised the efforts of all the employees in the times of current economic distress and hardship caused by the COVID 19 pandemic. Awards and citations were given to outstanding employees and subcontractors in the event.

02

㈜씨에너지와의 CO2 공급계약

CO2 Supply Contract with C Energy Co., Ltd.

최근 CO2 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있고 CO2 압축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었다. 그리고 당사는 지난 8월 및 9월에 ㈜씨에너지와 CO2 압축기 2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각각 경기도 동탄과 경남 창원에 설치될 예정이며 200마력급의 Vertical 타입의 압축기로 제작될 예정이며 올해말 12월경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With sharp increase of demand for carbon dioxide (CO2)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explosive demand for CO2 gas compressors. In August and September this year, we made two separate contracts with C Energy Co., Ltd. for our CO2 compressors. These vertical, 200 HP compressors are scheduled for shipment in the December this year for installation at Dongtan New Town in Gyeonggi province and Changwon City in Gyeongnam province.

04

샘표식품(주) 이천공장 PET 압축기 공급계약

PET Compressor for Sempio Foods Company

당사는 지난 8월 말 샘표식품(주) 이천 공장에 설치될 PET 압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공급될 PET 압축기는 200마력의 중소형 압축기이며 Vertical 형태로 제작되어 공간활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작된다. Compact 하게 디자인될 이번 압축기는 올해 12월 말경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We made an agreement with Sempio Foods in August this year for us to supply one set of PET compressor for their Icheon Plant. A medium-sized compressor of 200 HP, this vertical type PET compressor will be designed for tighter footage enabling efficient utilization of space. This compact equipment will be shipped in December this year.

06

전북개발공사 & 전북테크노파크와 수소충전소 공급계약 체결

Hydrogen Gas Fueling Stations for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and Jeonbuk Technopark

지난 8월 말 및 10월 초 전북개발공사와 전주 수소버스 충전소 공급계약 체결 및 전북테크노파크와 부안 수소충전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광신은 꾸준히 수소충전소 수주를 해왔지만 수소버스용 충전소는 이번이 처음 공급이다. 하지만 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보다 뛰어난 수소충전소용 압축기를 공급하기에 수소버스 충전도 전혀 문제없으며 전주와 부안 수소충전소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In the end of August and in early October this year, we made supply contracts with Jeonbuk Development Corporation for a hydrogen bus fueling station and with Jeonbuk Technopark for Buan hydrogen fueling station. Both fueling stations will be built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Kwangshin saw its first order for hydrogen bus fueling station despite numerous orders for hydrogen fueling stations for other vehicles. Nonetheless, Kwangshin has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hydrogen fueling technology and is in an excellent positi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hydrogen bus fueling station.

05

2020 KWANGSHIN NEWS

2020. 11 / vol. 88

한국가스공사 수소충전소 공급계약

Order from Korea Gas Corporation for Hydrogen Fueling Station

지난 8월 말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공사 본사에 설치될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수주에 성공하였다. 일반 지자체가 아닌 가스공사 입찰건에서 수주는 처음이며 그리고 가스공사 본사에 설치되는 상징적인 수소충전소이기에 당사는 꼭 수주를 원했었다. 이번에 수주한 수소충전소는 넥소 10대/시간 또는 수소버스 2대/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며 World Gas Congress 2021 전에 완공될 예정이다.

We made an agreement with Korea Gas Corporation for us to provide hydrogen fueling packages to be installed at their head office area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is order is important and symbolic for us, as it is the first order we have ever won from a competitive tender given by a public institution (apart from local government bodies). The hydrogen fueling package will be designed to fuel 10 NEXO fuel-cell vehicles or two hydrogen FCEB (Fuel Cell Electric Bus) per day. It will be completely built before the World Gas Congress 2021.

스웨덴 Biogas 압축기 설치 시운전 완료

Successful Test Operation of Biogas Compressor for Sweden

HZI Jonkoping Biogas AB 사에서 발주한 GEO-AII 90KW 3단 압축기가 9월 14일 스웨덴 Jonkoping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시운전 완료되었다. 급유식 모델로 VFD Motor 와 Inverter panel 옵션이 채택된 본 압축기는 HAZOP 및 SIL Assessment 수행 후 북유럽 대리점인 Naerenergi 와의 협업으로 북유럽 현지의 거친 기후에 적합한 Nordakp enclosure 내부에 설치 되었다.

The test operation for the GEO-All 90KW 3-Stage compressor ordered by HZI Jonkoping Biogas AB, Sweden was successfully completed on Sept. 14, 2020 at the Jonkoping site. Using the VFD motor and inverter panel options for the refueling model, this weather-resistant compressor has Nordakp enclosure inside to withstand the harsh local weather conditions. The enclosure was installed as a result of collaboration with Naerenergi, our distributor in Northern Europe, after HAZOP and SIL assessment.

동원시스템즈 & 동원F&B와 PET 압축기 공급계약

PET Compressors for Dongwon Systems and Dongwon F&B

당사는 지난 9월 초 동원시스템즈 및 동원 F&B 와 각각 300HP, 350HP PET 압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2가지 압축기는 Vertical 타입의 압축기로 제작되며 저렴한 비용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가성비 높은 제품을 추구하는 당사의 R&D 팀의 연구개발의 결과물로서 2021년 1월경 납품될 예정이다

We made agreement with Dongwon Systems and Donwon F&B for us to supply one set of 300 HP and one set of 350HP PET compressor respectively. To be designed in vertical type, these economical products with powerful performance will be delivered in January 2021.

MH에탄올(주) 와 CO2 압축기 및 부가 설비 공급계약

CO2 Supply Contract with C Energy Co., Ltd.

지난 9월 말 당사는 인근에 있는 MH에탄올(주) 과 CO2 압축기 및 부가 설비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당사의 당사 제품을 여러대 사용하고 있어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에 이번에도 200마력 급의 수평형 CO2 압축기와 함께 Carbon & Desiccant 드라이어 및 칠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내년 3월경 제품을 인도할 계획이다.

An agreement was made with MH Ethanol Co., Ltd. in the end of September this year for us to supply one set of CO2 compressor and other equipment. The order from this royal customer who is familiar with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Kwangshin products is comprised of one set of horizontal CO2 compressor; and carbon and desiccant dryer and chiller. All the equipment will be shipped in March next year.

인천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CNG 충전설비 공급완료

Complete Shipment of CNG Fueling Equipment for Public Bus Garage for Incheon-Yeongjong Area

인천지방조달청의 발주로 제작되었던 "인천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용 CNG 충전설비가 10월 30일 현장에 정상납품 되었다. GEO-B 250HP 4단 압축기 2대, 3라인 Cascade 타입 Priority fill panel 및 ASME 1300liter 저장용기 3개와 GEO Single hose 충전기 2대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POS등 부대설비와 함께 납품 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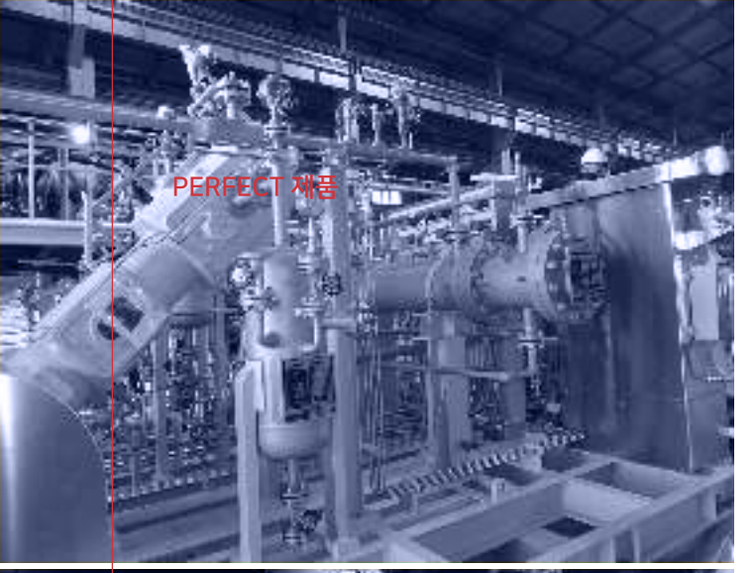
The CNG fueling equipment for the public bus garage for Incheon-Yeongjong area, which had been ordered by the Incheon Regional Public Procurement Service, were successfully delivered to the site on Oct. 30 this year. The order is comprised of: 2 sets of GEO-B 250HP 4-stage compressor; a 3-line cascade-type priority fill panel; 2 sets of GEO single hose fueling equipment; an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a POS and auxiliary equi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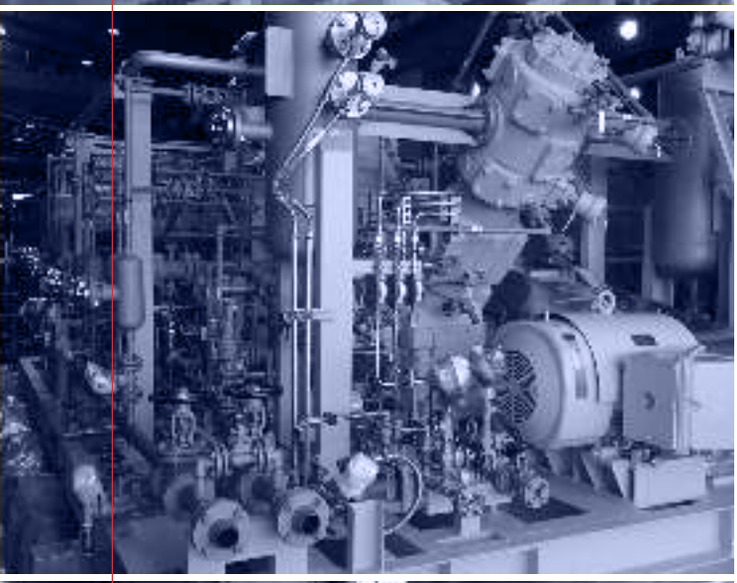
스웨덴 버스충전용 CNG압축기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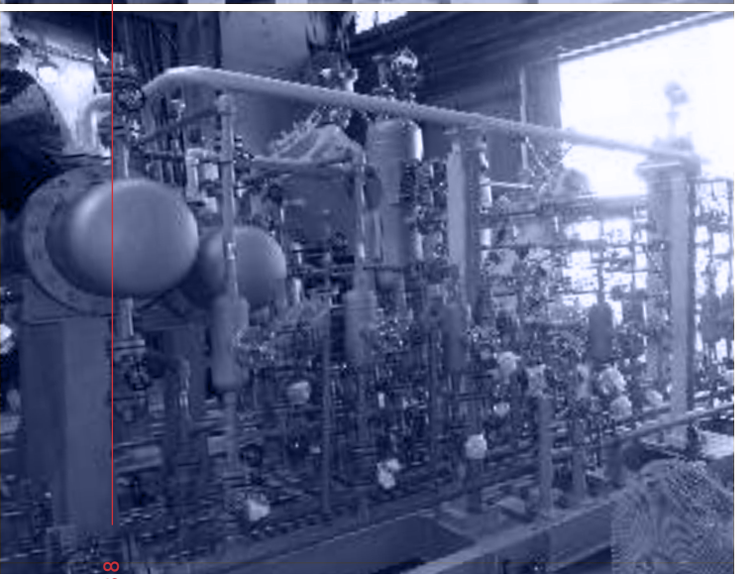
CNG Compressor for Bus Fueling in Sw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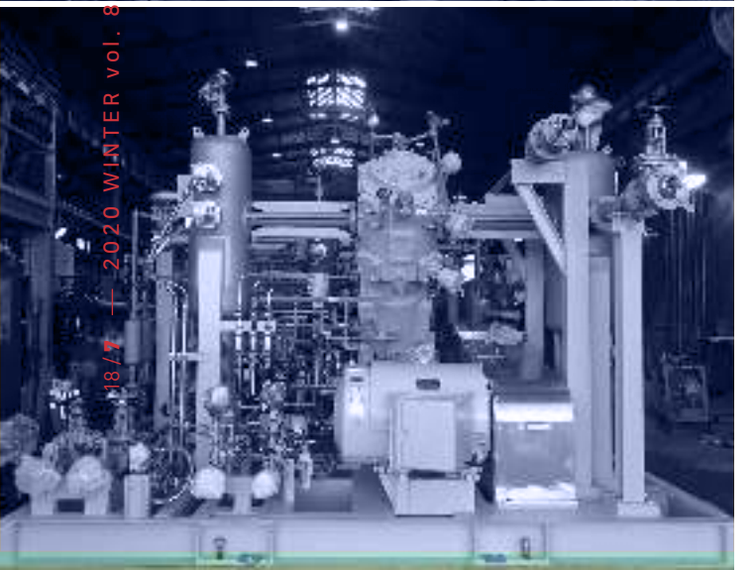
덴마크 대리점에서 발주한 가변흡입압력 (Variable inlet pressure)용 CNG Compressor 2기가 제작 및 시운전 완료되어 10월 8일 선적되었다. 스웨덴 소재 Ljungarum 및 June avfall NGV Slow fill CNG 버스충전소에 각 납품 되어 하루 약 50대의 버스 충전 용도로 사용 될 예정이다. 본 압축기는 15~250bar의 가변흡입압력 용도로 공냉식(air cooled heat exchanger), 급유식 (lubricated option) 모델로 제작되었다.

Two sets of the CNG compressor for variable inlet pressure that had been ordered by our Danish distributor were shipped on Oct. 8, this year after successful test operation. To be used for fueling approximately 50 buses per day, those compressors will be delivered to Ljngarum and June avfall NGV Slow Fill CNG fueling stations for bus, which are located in Sweden. Those compressors for variable inlet pressure of 15~250bar are designed for air cooled heat exchanger with lubricated option.









NITROGEN COMPRESSOR 제작
(SR19040 HPC PROJECT)

MODEL	NITROGEN COMPRESSOR (SR19040)
STAGE	SR19040 TWO(2)
TYPE	SR19040 "DYNL" TYPE
선정기준	현대케미칼 HPC PROJECT

현대케미칼 HPC PROJECT

HPC(정유 부산물 기반 석유화학 공장) PLANT사업은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 현대케미칼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PROJECT입니다.

HPC는 정유과정에서 나오는 중질유 등을 활용해, 플라스틱, 합성고무의 원료 및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일컫습니다.

이 PROJECT와 관련하여 여러 EPC 및 정유회사, 건설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EPC 2개 업체(SR19040 대림산업과 SR20003~8 롯데 E&C)와 광신기계공업이 계약하여 HPC PROJECT에 사용될 COMPRESSOR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다른 COMPRESSOR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으며, 검사 관련으로도 고객검사 및 국내 법정규격인 KGS, KOSHA 법규도 준수하여 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석유화학 PLANT 사업으로 제작되는 COMPRESSOR에 대해서는 CLEANING LICENCER를 미국 또는 유럽 LICENCER로 진행 되므로, 까다롭게 진행되는 점이 특이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광신 STANDARD 내부 CLEANING 방법인 PARKERIZING AFTER ACID TREATMENT에서 구연산 CHEMICAL CLEANING으로 고객 SPEC이 지정됨에 따라 내부 CLEANING에 신경써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의 큰 EPC PROJECT에 여러 COMPRESSOR 중 광신기계공업 COMPRESSOR의 지분율이 상승되어 감에 따라, 세상에 필요한 기계를 만들자라는 광신기계공업의 MOTTO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여느 회사보다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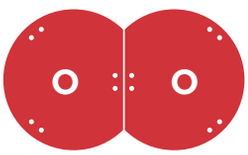
_ QHSE팀 진창민 대리

01 산소란?

산소(Oxygen)는

화학 원소의 하나로, 원소 기호는 O(라틴어: Oxygenium)이고 원자 번호는 8, 평균 원자량은 15.9994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소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무색, 무미, 무취인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액체 상태일 때는 옅은 푸른색을 띕니다. 공기의 주성분 중 하나로, 지구 대기와 해양을 포함한 지각의 49.5%를 차지합니다. 건조한 공기에서 산소는 부피 백분율로 20.946%을 차지하며, 우주에는 수소, 헬륨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나 그 존재 비율은 낮습니다.
산소는 대부분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약 4분의 3은 대양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가, 나머지 4분의 1은 육상 식물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로써, 산소가 결핍되면 5분이 지나 뇌사 상태에 빠지고 8분 뒤면 사망합니다. 산소는 그 자체로는 불이 붙지 않지만 쉽게 불이 붙도록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입니다.

02 산소의 생산



oxygen
산소, 酸素

산소는 물(H2O)을 전기분해하여 얻을 수 있지만, 산업용으로는 공기분리 시스템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공기분리법으로는 압축공기를 냉각하고 증류하여 분류하는 심냉분리법 (Cryogenic Air Separation), 흡착제와 압력변동을 이용한 흡착분리법 (Pressure Swing Adsorption)과 비교적 최근에 상용화된 멤브레인의 친화성과 압력차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막분리법 (Membrane Air Separation) 이 대표적입니다.

03 산소의 용도

산소는 생명에 필수적인 호흡에 사용됩니다. 근래 코로나19 감염자들의 호흡력 약화 증상은 뇌에 산소 공급을 저감시켜 뇌 손상을 유발함으로 감염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소 호흡기를 처방하는 것이 1차적 치료로 사용될 만큼 의료용 호흡으로도 중요한 물질입니다. 산업용으로는 제철소, 금속의 용접 및 절단, 폐수 폐유 처리, 유리 제조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로켓, 잠수함 추진 조연제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긍정적 활용도 외에, 화학적으로 매우 활성이 높은 산소의 특성으로 음식물의 산화, 발화, 금속의 부식 등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산화 과정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04 산소압축기

산소 압축기는 산소의 제조뿐 아니라 운반을 위한 저장, 투입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의 높은 활성도로 산소 압축기의 설계 및 제작에는 특별한 기술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신에서는 산소 압축기를 40년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53년 광신이 수주하여 생산한 압축기 중 약 13% 이상이 산소 압축기 인 것을 보면, 광신의 산소 압축기 생산, 기술력은 세계 일류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Air Liquide · AirEP · PCI · SISECAM · AIR PRODUCTS · 대성산업가스주식회사

_ 기술 T/S팀 이동현 팀장

특별기고

수소경제의 시작과 이를 대하는 중소기업의 자세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수소 위원회(Hydrogen Council)가 발족하고 첫 회장으로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이 취임했을 때는 모두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어느새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이었던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각 분야의 관심이 쏠렸으며 그리고 2020년 수소경제 육성화법의 국회통과, 7월 국무총리 주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수소경제에 뛰어들지 않는 기업이 더 이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시작으로 두산, 한화, 효성, GS, SK 등 국내의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수소전기차 핵심기술 육성과 수소충전소 보급, 연료전지의 공급 의무화 등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라면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 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200기, 연료 전기 발전소 증대 등 각 분야에 많은 부분이 변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신규 시장으로 누구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산업이 부각된다는 것은 기존의 산업에 있던 부분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차가 부각되면서 당장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차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솔린 엔진차량도 이르면 유럽에서는 30년부터 없어질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조치이긴 하지만 기존의 산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힘들게 일궈놓은 노력의 산물이 없어지는 부당한 조치로 느껴질 겁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또한 자금력이 충분한 일부의 대기업이라면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소경제시장에서 앞서가는 기업들 또한 대기업들입니다.

광신기계공업, 범한산업, 하이록 코리아 등 현재 한국의 수소 경제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업체들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기업들과 차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시장을 예측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아끼지 않았던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사는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기술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 국가의 산업이 원활히 돌아갑니다. 유럽의 경우 특정 대기업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움직여도 중소기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불가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산업은 일부의 대기업이 앞서가면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구조를 점점 탈피하고 있는 상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시장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지 않고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R&D에 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안주하는 기업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이 R&D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예측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는 기업들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수소 경제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소 산업은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잘 모르는 시장일수는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과연 하루 아침에 지금의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온 만큼 위의 업체들과 같은 길을 간다면 충분히 수소 산업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_ 한국수소산업협회 정연호 팀장

차별화 된 기술력을 보유한 (합)한영전기

01 (합)한영전기 창립은 언제이며 창립계기는?

(합)한영전기는 1991년 1월 법인 설립 후 전기설비의 설치 및 운영의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전기 설비 사용자에게는 최대의 차별화된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Y-OUT 설비, 플랜트설비, 자동제어설비, 건축전기, 수 변전설비 소방설비 등 전기, 소방분야의 총괄적인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 회사조직도

- 대표사원 안효섭
  - 관리부
    - 관리과
      - 구매
      - 경리
      - 회계
  - 기술부
    - 공사1과: 플랜트 설비 분야
    - 공사2과: 자동제어 분야
    - 공사3과: 동력 설비
  - 임원

03 주요사업분야

한영전기 주요사업분야	크린룸 공조제어 분야	LAY-OUT 분야	수처리 분야	CNG 전기/ 계장 분야
	동력 및 자동제어 분야	전산센터 분야	화학플랜트 분야	
CNG 압축제어기술	**소개** Disel 버스의 매연 증가로 인하여 CNG로 연료가 대체,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가스를 저감하는 설비, CNG는 매우 높은 압력으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압축제어가 중요 **특징** 저압력의 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는 공정을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제어하는 장치			

04 기업의 가치관

(합)한영전기는 전반적인 시공 및 유지보수관리 및 A/S에도 정확한 원인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05 광신의 첫 거래

2006년 9월 인천공항 CNG충전소, 성곡 CNG충전소 전기공사 시공으로 광신과 출발하여 2020년 11월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수소충전소 전기공사 외 수많은 공사를 완료하며, 상호 협력하에 꾸준한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6 (합)한영전기 비전과 목표

2006년 3월부터 이어온 CNG충전소 제어시스템의 Know-How가 축적되어 H2 전환환경에 유리하며 꾸준한 기술 연구로 경쟁력을 갖추며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_ (합)한영전기 대표이사

덴마크 EVIDA 출장

COVID-19 대유행 기간이었지만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EU) 일부 국가 입국 금지가 7월 초에 해제되어, 다행히 7월 중순에 북유럽 덴마크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한국은 폭염으로 힘든 8월이지만, 덴마크는 8월에도 비는 항상 돌풍과 같은 바람과 함께 내려 여름과 초 겨울을 오가는 날씨가 반복이 되었다. 북유럽 공기는 깨끗한지 석 달 내내 Rental한 차량을 세차 한번 하지 않아도 유리창이 선명할 정도로 미세먼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을 만큼 하늘은 맑았다.

이번 출장은 덴마크 가스, 전기를 공급하는 국영 기업 EVIDA에 광신 공급 범위 장비 Compressor Package, Control Panel, Inverter Panel, Air-cooled Heat Exchanger 등을 Receive, Install, Grouting, Commissioning 등의 작업 범위를 포함하여 향후 5년 간의 유지보수도 논의되는 출장이었다. 친환경 Upgraded bio- Gas(가축의 분뇨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Distribution grid(40 bar)에 공급하는 2개의 Project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 장비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압축기를 안착할 기초 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독일 Hamburger 항구에서 Packing Box의 도로 폭 초과로 독일 경찰의 Road Permit, Escort 받아 출발하는 운송 차량이 현장에 하나 둘씩 도착하면서, Project Manager Mr. Jester Johansen, Civil Manager Mr. Jesper Hansen, Electrical Manager Steffan의 많은 도움으로 설치 공사는 순조로이 진행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Project는 전기 판넬 공급업체와 I/O test, Function test 등이 진행되어 SAT(Site Acceptance Test)를 마쳤으면 합니다.

덴마크 EVIDA project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Framework agreement, Mini-tender 과정에서 노력해 주신 영업본부, 기술팀, 생산팀, 구매팀 등의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_ CM팀 이동호 차장

PMC
Plant Maintenance Corporation

Plant Maintenance Corporation (PMC) is a Japanese trading firm supporting various plants worldwide.

Our major clients are large-scale plants in the fields of oil refining, petrochemicals, LNG, steelmaking, thermal and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gas processing, and fertilizer industries over the world.

A typical plant consists of more than 300 pieces of equipment and machinery, each of which requires a large number of spare parts in order to maintain operational capabilities. PMC has established a purchasing and distribution network comprising more than 100 machinery/equipment/parts manufacturers both within and outside Japan in order to be able to "procure and supply anything required." The network enables PMC to provide clients' plants with optimum supplies, ranging from bolts and gaskets to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and, when required, complete equipment and devices for revamping and expansion.

PMC has built up a reliable global network, comprised of plants located worldwide, that is able to respond to requests for services from clients. Through executing our overseas activities for many years, we have established partnerships with a number of local enterprises. This region-based network enables us to provide specific services rapidly and effectively.

PMC participating tenders of supply Kwangshin's industrial compressors to our client in Egypt. Kwangshin compressor business in Egypt is most important mission for us.

_ Mr. Yamazaki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해외 출장을 다닐 때마다 많은 밤을 뒤척거리다 생각하고 메모했던 단어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나 자신의 욕심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 어딘가에 "현실안주"라는 달콤함과 비겁한 타협을 하지 말라는 메아리를 들으며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생각이라고 여겨 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사명감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명감은 가끔 하찮은 공명심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라는 대답이 아마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팽배해진 현실 안주 주의, 잘못 이해되고 있는 책임에 대한 정의, 두려움이 강한 또는 책임회피성이 짙은 색깔로 포장된 책임감

이 잘못된 책임감은 사명감을 싹도 내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누가되는 일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팀원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설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떠들어 댑니다. 본인이 설계한 내용을 다음 단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설계를 해야만 잘하는 설계라는 논리이지요. 혼자만 이해되고 혼자만의 일정으로 설계를 한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조직원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즉, 조직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만약 동료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조직에 결코 이로운 존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어떤 회사든 나름의 시스템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업→설계(개발)→자재(구매/조달)→생산→고객관리 등의 과정이 일반적인 생산활동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의 특성, 조직의 인적 구성,생산 제품의 특성, 고객의 특성 등등의 이유에서 적절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개선 활동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겠지요.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주어진 권한은 잘 수행하셨으며 더 필요한 권한이 있습니까? PDCA(PLAN→DO→CHECK→ACTION)를 늘 생각하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집니다.

목표의식은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합니까?
지금이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 했다고 믿습니까?
온정주의에 의한 차선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조직을 미래를 배려 하셨습니까?

끝으로 신뢰는 얻으셨습니까?

_ 중동의 하늘아래에서, 글쓴이 : 무명

이달의 사원
2020.07 ~ 09

7월

TS팀 소병진

그는 2018년 하반기에 광신 기술팀에 입사해서 수주 전의 견적 단계부터 작업 진행시 설계 간 필요한 여러 지원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수준급의 영어실력으로 업무 누락을 최소화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간에도 사이가 좋아 그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게다가 작년엔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감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생산 가공팀 박갑봉

가공팀 보링 파트의 일원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하기로 소문난 그. 오랜 근무 경험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당연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까지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그에게서 볼 수 있다. 일을 할 때는 오롯이 집중하는 모습에서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8월

구매팀 정준우

현재 구매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장기간 근무자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오래전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의 경험을 듣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 관련 질문 등 일상의 소소한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이가 끊이질 않는다. 사람을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그의 성격 덕분일 것이다.

조립파트 CNG

지난 1년 중 한 분기만 거르고 벌써 세 번째 이달의 사원에 이름을 올린 CNG 파트.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믿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CNG 파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당연지사. 앞으로도 변함없는 CNG 파트를 믿어본다.

9월

Q-hse 하성민

WELDING PART의 검사자로 주로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압력용기는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는 입사한지 만 2년이 되었는데 이제 신입의 티를 말끔히 벗고,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자신의 몫을 제대로 처리하는 광신의 구성원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생산 가공팀 배익도

어떤 모임에서 그것을 이끈다는 것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다. 소소한 친목모임도 그러한데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회사에서는 부담이 가기 마련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구성원 각자가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해줄 때 현장 반장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된다.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

2차 대유행의 시작인가?

북반구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 후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전세계 감염자가 4천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초강대국 미국은 누적 확진자 최다 국가가 되었고, 유럽 강대국들도 2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 등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은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광신은 별 문제 없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해외영업 담당자로서 직접적인 현지 출장만 없을 뿐 모든 업무는 E-mail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진행 중이며, 얼마 전 덴마크 Energinet 과 계약한 제품들이 운송 후 현지설치가 시작 되면서, 지난 7월부터 우리 Supervisor 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용 제품의 유럽시장 첫 진출이라는 유의미한 첫걸음을 이러한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내 딛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2차 계약 일부가 취소되고 추가 입찰은 아쉽게도 이태리 경쟁업체에 빼앗기는 등의 부침이 있었지만, 유럽시장 영업책임자인 이태리 Mr. Paolo Guardigli 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북유럽시장의 파트너가 된 Naerenergi 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태리 경쟁업체가 수주한 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WHO에서 팬데믹 선언하던 시기를 전후로 계약이 되어 이태리 현지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수행이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향후, 광신이 덴마크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설치 중인 제품들이 시운전까지 별탈 없이 마무리되고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진다면, 광신 제품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이 제대로 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

Energinet PM의 현장 스케줄에 따르면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 전까지 모든 시운전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무탈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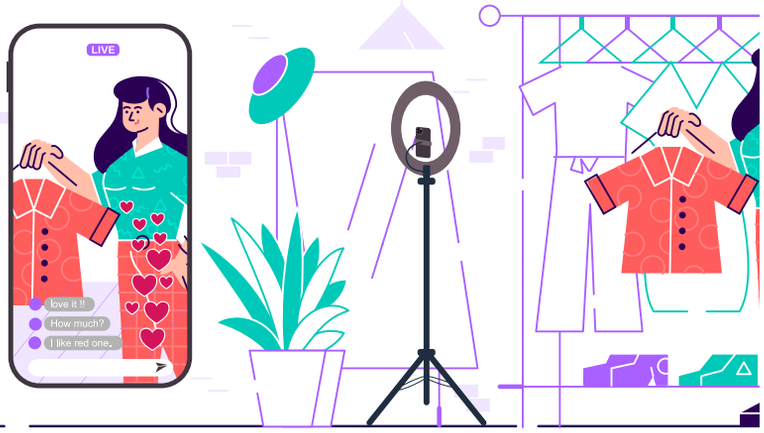
광신 화이팅!

_ 영업본부 신승엽 파트장

생중계로 보며 쇼핑하세요!

LIVE COMMERCE

온라인에 문을 연 오프라인 매장!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융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소개하며 소비자와 댓글로 소통까지 가능한 쇼핑 방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줄어든 요즘, 안전하게 쇼핑을 즐김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살펴보는 것처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죠. 언택트(Untact) 소비문화의 확산 속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라이브 커머스가 뜨는 이유

기존 온라인 쇼핑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지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구매 전에 물건을 충분히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 댓글 소통으로 판매자는 시청자들의 반응과 평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요청하며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것처럼 꼼꼼하게 물건을 살펴볼 수 있죠. 화장품 매장의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화장품을 바르고 화장법을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에게 발색, 발림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소비자는 댓글로 원하는 화장품의 발색이나 정보를 요구하면서 제품을 살핍니다.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의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함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입점 매장의 제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퀴즈나 게임 같은 예능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소비자는 마치 한 편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처럼 물건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2030세대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건을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흐려진 시대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이로 인해 기존 모바일 쇼핑과 분명한 차별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2.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의 차이점

영상을 통해 판매자가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화면을 통해 물건을 보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은 비슷해 보입니다. 판매자가 곧 진행자라는 점도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의 공통점이죠.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는 채널 속에서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간접 체험을 돕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전문 진행자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진행한다는 점도 차이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와 친근하게 소통하며 코디 정보, 제품의 사용 팁, 관리 요령 등을 소개한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이죠. 라이브 커머스의 진행자들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스타의 스타일링을 따라 하거나 아이돌 공항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신상품 '언박싱' 영상을 찍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3. 라이브 커머스 전망

라이브 커머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6년부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초창기에는 뷰티, 패션 아이템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로켓 발사권까지 판매될 정도로 못 파는 게 없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국내의 주요 유통 업체들 역시 판매하는 상품군과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 시키고, 오프라인 매장에 온라인의 장점을 접목시킨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쇼핑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MZ 세대는 물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전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 고객에게만 라이브 채널 주소(URL)을 보내면 비공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VIP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라이브 커머스의 활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_ C/S 박정한 대리

식사 후 꼭 걸으세요.

젊은 당뇨 예방하기

젊음의 가장 큰 무기는 아마 건강이 아닐까.
당뇨병은 여러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익숙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젊고 어리기 때문에 끄떡없을 것 같은 당뇨병, 최근에는 20~30대 사이에서도 자주 발병하고 있어 젊은 당뇨라는 이름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이에 젊은 당뇨와 이를 예방하는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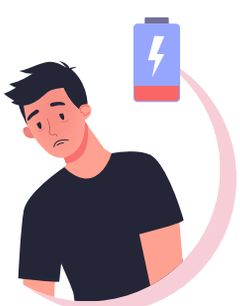
1 당뇨란?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모두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 혈액 내 머물게 된다. 포도당이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작용을 받아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해야 하는데 운동 부족, 고지방 음식 섭취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해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내 머물게 되어 당뇨가 발생하게 된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당뇨합병증 때문인데 혈액 내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은 계속 끈적해지고 순환 역시 느려지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당뇨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젊은 당뇨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이 당뇨라고 하는데, 만 30세 이상으로 집계한 수치이기에 당뇨가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30 ~ 44세 사이의 당뇨는 젊은 당뇨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 통계를 근거로 보면 젊은 층의 5명 중 1명이 당뇨라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당뇨의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생활 식습관 등의 영향도 크다.

3 젊은 당뇨의 원인



잘못된 식습관

최근 서구화된 젊은 층의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높은 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너무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고 따라서 젊은 층에서도 당뇨가 발생하기 쉽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

20대~40대가 속하는 젊은 층은 보통 잦은 야근과 직장 내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세대이기도 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듯 당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4 젊은 당뇨 타파하기

젊은 당뇨는 다행스럽게도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운동요법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젊기에 도전해볼 수 있는 운동의 범위도 많고 강도 높은 운동도 수행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좋고, 근력 운동은 1주일에 2회 이상 해주는 것이 좋다. 1시간에 4km 걷는 정도로 심장이 적당히 뛰고 숨이 찰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금주, 금연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바로 앉기 보다는 산책하듯 걷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만큼 스트레스 조절과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보자.

_ 영업본부 김윤영 계장

광신인 소식

새로운 광신인을 소개합니다.

9월 입사자

9/15 영업본부
권유정 주임

2020년도 9월 광신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작가 정유정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세상으로 뛰어든 열다섯 살 세 애송이들이 펼치는 '개판' 여행기를 그리고 있다. 청룡열차를 탄 것 같은 속도감 있는 문체, 유머가득 담긴 입담 속에 펼쳐지는 십대들의 풋풋한 사랑과 그 비밀스러운 성장 이야기로, 2007년 제1회 세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다.

소설은 1986년 여름, 수원 근처 한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열다섯 살 주인공 준호는 학생 운동권의 전설적인 존재인 형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여권과 여비 등을 전달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는다. 약속 장소는 남도의 신안 임자도. 준호는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으나 느닷없이 같은 동네 친구 승주와 정아 때문에 여행은 엉망이 된다.

여기에다 정체 모를 할아버지와 루스벨트로 불리는 도베르만 개까지, 이 다섯 동행의 여행 모험담이 1인칭 화자 준호의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에 실려 쏟아진다. 80년 광주에서 실종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사는 준호, 가정폭력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을 안고 있는 정아. 지방 대지주의 아들이지만 부모의 도를 넘은 간섭 때문에 힘들어 하는 승주. 이 세 아이들이 무작정 낯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며 성장해 나간다.

400 페이지에 달하는 길고 긴 소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이 소설은 청소년 문학이긴 하지만 사실 어른을 위한 문학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스프링 캠프는, 프로 야구 · 프로 축구에서 봄의 정규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가지는 합숙 훈련기간 또는 그 장소를 뜻하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어른이 되기 전 혹은 그 시기에 나만의 스프링 캠프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줄 것이다.

당신의 스프링 캠프는 어디인가요?

_ 영업본부 김윤영 계장

2020 KWANGSHIN COMPRESSOR NEWSLETTER

2020 WINTER
vol. 88